

# “농식품 가공시설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달라”

## FTA 등 농가 경영부담 가중

### 전남도, 정부·한전에 변경 촉구

전남도가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건의했던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 등에 거듭 촉구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정부

가 농업의 규모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성하는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식료품 제조를 위한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 곡물가공품 제조, 발효주 제조

시설 등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이 철강, 자동차, 기계장비 등과 같은 제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한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협상 시 농업 강대국은 경쟁력이 취약하고 산업구조가 영세한 농업분야의 시장 개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가공과 제조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

력요금으로의 변경 적용이 시급하다.

도는 그동안 유사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가족농도 공동처리장 등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수차례 걸쳐 건의한 결과 최근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요금 적용체계가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설치목적이 유사하고 운영주체도 같은 농업경영체인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은 아직도 여전히 산업용으로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버를 가공하는 미국 종합처리장(RPC)에서는 산업용 전기요

금을, 버 건조 저장시설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농민과 농업법인들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은 철강, 자동차 등과 같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구조가 취약한 만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같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산업용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도록 지속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 담양지역 농·축협 힘 모았다

2015년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성공개회를 위해 담양지역 농·축협이 힘을 모았다.

NH농협 담양군지부(지부장 김영석)와 담양농협(조합장 박이환), 담양축협(조합장 김명식) 등 담양읍 소재 농·축협 임직원 80여명은 지난 25일 세계 대나무 박람회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농·축협 임직원들은 새봄맞이 거리 환경미화 활동에 이어 가두캠페

를 하며 군민들에게 안내장과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담양 세계대나무 박람회를 홍보했다.

김영석 지부장은 “농·축협 직원들이 대나무 박람회 성공개회를 기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2015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죽녹원 일원에서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세계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다.

/염양=정재근기자 jgg@

### 목포의 명물

#### 춤추는 바다분수

#### 내일부터 공연 재개

한국관광 기네스로 선정된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가 28일부터 화려한 밤의 향연을 펼친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겨울철 바다분수 공연 중단 기간에 70m 에어젯의 거대한 물기둥에 고효율 LED 조명과 육지에서 분수방향으로 레이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기능을 보강했다.

영상 그래픽도 보강해 화려하고 색조감있는 조명에 보다 다이내믹한 웅장함을 더했다.

바다분수는 28일부터 ▲화·목·일요일 2회(밤 8시, 8시40분) ▲금·토요일 3회(밤 8시, 8시40분, 9시20분)가 된다.

하절기(6~8월)에는 일몰 시간에 맞춰 ▲화·목·일요일 2회(밤 8시40분, 9시20분) ▲금·토요일 3회(밤 8시40분, 9시20분, 10시) 물줄기를 쏘아 올린다. 공연 시작전 20분간 생일축하와 프리포즈, 모임 축하 사연도 소개한다.

희망자는 바다분수 홈페이지(seafountain.mokpo.go.kr)로 신청하면 된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장성 약수초등학교 학생들이 북하면 신성리 ‘별내리마을’을 찾아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목성을 관측하고 있다.

## “처음 보는 목성 표면 너무 신기해요”

### 장성 별내리 마을 ‘천체관측 행사’ 초·중생 큰 호응

### 망원경 5대 설치 태양흑점·오리온 대성운 등 관찰

“처음 보는 목성표면의 무늬와 일렬로 늘 선 4대 위성이 너무 신기해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천체망원경을 통해 목성을 첫 관측한 박현준(장성중 2년) 등 많은 초·중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2일 밤,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 입구에 자리한 펜션 ‘별내리마을’ 주차장, 짙은 밤 날씨에도 불구

하고 체험학습차 행사장을 찾은 장성 약수초등학교(교장 나병석) 학생 60여명은 천체망원경 앞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줄을 섰다. 학생들은 차례 차례 순서를 기다렸다가 12인치 돛소니언식 반사망원경의 접안렌즈를 통해 목성과 오리온 대성운, 플레이아데스 성단 등 경이로운 우주의 일부분을 맛봤다.

지난 22~23일 열린 ‘제8회 장성

백양 고로쇠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관측행사는 광주·전남지역 아마추어 천문가 동호회 ‘별사랑’(회장 성화중·www.astrolove.kr) 회원들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주민들은 매년 새봄에 백암산 자락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축제를 열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별사랑’ 회원들은 4~6인치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 5대를 주차장에 설치한 후 축제장을 찾은 학생과 관광객들에게 목성과 오리온 대성운, 플레이아데스 성단 등 경이로운 우주의 일부분을 맛봤다.

신성리 마을주민들은 산림청 주관의 산촌 생태마을 공모사업에 선정

돼 국비 14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숙박을 하면서 별관측 체험도 할 수 있는 펜션시설 ‘별내리 마을’(jsstar.or.kr)을 건립,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13평 크기 편백나무 인테리어 숙박시설 5실과 세미나실(30평)을 갖추고, 전화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특히 건물옥상 반구형 관측 돔에는 9.25인치 슈미트 카세그레인식 망원경(SCT)이 설치돼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천문대 관측 체험 외에 남창골 자연관찰로 탐방(1km·소요시간 1시간 30분)도 진행하고 있다.

정동림(45) 마을이장 겸 축제추진위원장은 “남창계곡을 찾아 고로쇠 수액도 맛보고 아름다운 밤하늘도 감상해 보라”고 말했다. 문의(061-393-1989)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산모, 긴급상황시 걱정마세요

### 도, 농어촌 아이 낳기 좋은 여건 마련 구급차 출동·이송 등 응급체계 강화

전남도가 분만 취약지역인 농·어촌에서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 긴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 출동 및 이송 등 응급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과 26일 보성과 함평에서 연이어 만삭 입부가 산통을 호소해 구급차로 분만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병원이 갖고 있는 분만의료 인프라를 공유하고 소방당국의 시스템 연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관련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7일 전남 소방본부와 농·어촌 분만취약지역의료기관, 시·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임산부 특별 이송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이날 간담회에서는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로 지정된 강진 의료원, 고흥 종합병원의 인프라와 전남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U-안심콜’제도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U-안심콜 서비스는 전남도 소방본부와 농·어촌 지역 산모의 분만 예정일을 119에 등록한 후 응급상황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구급차가 출동해 분만병원으로 이송하는 임산부 특별 이송대책이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2011년 강진의료원이, 2013년 고흥종합병원이 각각 선정돼 시설·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분만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지역군은 곡성·보성·장흥·해남·함평·영광·완도·진도·신안 등 9곳이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담양·곡성·구례·보성·영암·진도·신안 등 7곳이다.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파이오-50”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조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함유되지 않은 3무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센터 080-234-6588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